

G2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겔투TM 현탁액
(알마게이트)

■ 원료약품의 분량 : 1포(15ml) 중

알마게이트(KP).....1.5g

클로르헥시딘아세트산염(BP) 0.0018g

■ 성상 : 점성이 있는 백색의 방향성 현탁액

■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속쓰림,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 용법·용량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알마게이트로서 1회 1~1.5g을 1일 3회, 식후 30분~1시간에 경구 복용한다. 필요시 취침 전에 1회 더 복용할 수 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알츠하이머병 환자 3) 치질 환자 4) 체액 저류(부기) 환자 5) 임신 중독증 환자 6) 설사 환자 7) 진단되지 않은 소화 기관 출혈 환자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함께 복용시 흡수를 억제할 수 있음)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 이 약의 흡착작용 또는 소화관내 체액의 pH 상승에 의해 함께 복용하는 약물의 흡수·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한다. (1)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궤양 치료제, 디기탈리스 제제, 클로르프로마진, 란소프라졸, 프레드니솔론, 페니실린, 퀴놀론, 철(Fe)염 제제 :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2~3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한다. (2) 살리실산염 : 신장의 배설을 증가시킨다. 2) 신장애 환자 :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이온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콩팥에 축적될 수 있다. 심한 신장애 환자에게는 권고되지 않는다. 3) 신체 허약자, 인 함량이 낮은

식이 요법 실시자, 소화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 : 이 약의 알루미늄염이 인 흡수를 감소시키므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중 인산염함량 감소 및 뼈의 무기질 침착장애를 야기할 수 있음. 4) 고령자 5) 혈액구토 또는 흑색 대변 등과 같은 소화기관 출혈 증상이 있는 환자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소화기계 :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변비 또는 설사 2) 2주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5.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복용시킬 것.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3)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 저장방법 : 차광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제조번호/사용기한 : 아랫면에 표시

※ 주의

1. 허가된 효능·효과와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한이 지난의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패·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제품문의처 :

소비자상담실 080-082-1234(수신자부담전화)

홈페이지 www.samjinpharm.co.kr

문서작성일 : 2015. 11. 26

15mL × 20포

G2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겔투TM 현탁액

(알마게이트)

※이약은 현탁제이므로 고온(37℃이상)에서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될수 있는한 37℃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제품 복용시 또는 취급시에 포자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SAMJIN

제조사명

삼진제약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1 (서교동)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52